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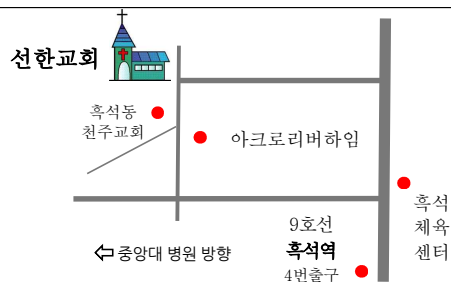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주 일 예 배   | 1부 주일 오전 9:30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 유 아 부           |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
| 중 국 어 예 배 | 주일 오후 4:00     | 청 소 년 부         |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7:30    | 청 년 부           |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
| 금 요 기 도 회 | 금요일 저녁 8:30    | 영 어 예 배         |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월삭새벽예배 6:00   |                 |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임목사 임 춘 배      | 국 내 선 교 사 |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
|         | 교육목사 권 인 혁      | 협 력 교 회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전임전도사 김 진 만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 교육전도사 윤 영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은 퇴 장 로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 고 상 돈, 김 대 희    | 관 리 장 로   | 손석규                  |
|         | 박 희 태           | 500/50 교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장 로     | 유 신 웅, 조 윤 익    |           |                      |
|         | 박 영 근, 윤 호 중    |           |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1:1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
| 오 전<br>예 배 |  |                          | 오전 11:0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기 원        |  | 인도자                      |          |              |
| 찬 양 과 경 배  |  | 28장 (통일찬송가 28장)          |          |              |
| 교 독 문      |  | 교독문 10 (시편 16편)          |          |              |
| 찬 양 과 경 배  |  |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          |              |
| 대 표 기 도    |  | 조 계 승 장로                 |          |              |
| 말 씬 봉 독    |  | 고린도전서 1장 18 ~ 25절        |          |              |
| 설 교        |  |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br>(임춘배 목사) |          |              |
| 환 영 및 광 고  |  | 인도자                      |          |              |
| 파 송 의 노 래  |  | 교회여 일어나라                 |          |              |
| 축 도        |  | 임춘배 목사                   |          |              |
| 성 도 의 교 제  |  | 다함께                      |          |              |

|            |  |  |         |              |
|------------|--|--|---------|--------------|
| 수 요<br>예 배 |  |  | 오후 7:3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지혜로운 자의 마음 자세 (잠17:1-12)

|                           |  |                                                                                                                                                                                                                                                                                                                                                                                                    |  |  |
|---------------------------|--|----------------------------------------------------------------------------------------------------------------------------------------------------------------------------------------------------------------------------------------------------------------------------------------------------------------------------------------------------------------------------------------------------|--|--|
| 교회소식                      |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br>-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4 1 주 년<br>창 립 기 념 예 배 |  | 3월 21일 교회 창립 41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  |  |
| 2. 예 배 안 내                |  |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br>신청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br>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br>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br>4. 헌금안내:<br>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br>-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  |
| 3. 개인경건훈련안내               |  |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br>3. 성경일독하기(2차): 일독하신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br>4. 경건서적읽기<br>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  |
| 4. 성 경 일 독                |  | 김계순, 김점분, 김혜선, 류은영, 오인숙, 오효남 유신웅,<br>유진수,조예은, 정진숙, 최성규, 최윤정<br>*기념품은 사무실에서 개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br>(우편 및 온라인)                                                                                                                                                                                                                                                                                         |  |  |
| 5. 떡 제 공                  |  | 구문서, 김은정 집사 가정                                                                                                                                                                                                                                                                                                                                                                                     |  |  |
| 6. 코 로 나 1 9<br>기 도 제 목   |  |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br>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br>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br>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br>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br>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br>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br>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br>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br>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br>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br>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  |  |

|              |                                                           |
|--------------|-----------------------------------------------------------|
| 한주간의<br>기도제목 |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br>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
|--------------|-----------------------------------------------------------|

가정예배

홍해의 갈라짐, 같은 사건 다른 의미

찬송 :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통 137)

본문 : 출애굽기 14장 21~28절

말씀 :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난관은 홍해 바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홍해 앞바다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면엔 막강한 이집트 병거와 마병, 그리고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전멸시키기 위해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전투력의 이집트 군대와 미처 전쟁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바다에 다리를 놓을 기술력도, 선박을 동원할 외교력도 경제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자주 회자 되는 성경의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두 쪽으로 갈라서 통행로를 만듭니다.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됩니다. 대략 300만명이 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무사히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넌다. 이집트의 살해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이집트 관할 지역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고대 근동 최정예 기병대와 전투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추격대는 홍해 바닷속에 모두 수장됩니다.

홍해 바다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이요, 구원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망이요 몰락이요, 하나님께 원망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같은 사건인데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기에 객관적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처럼 코로나19 사태도 누군가에게는 몰락이고 사망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사태가 은혜의 시간일 수 있고, 구원의 시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    |                                                         |  |
|----|---------------------------------------------------------|--|
| 제목 |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고전1:18-25)                                |  |
| 서론 | 고린도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 본론 | <b>1. 고린도교회 분열 원인</b>                                   |  |
|    | (1)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12절)      |  |
|    | (2) 분열의 원인이 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함                      |  |
|    | 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18절)  |  |
| 결론 | ②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심(21절) |  |
|    | ③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24절)                          |  |
|    | (3)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함(23절)                |  |
| 결론 | <b>2. 교훈</b>                                            |  |
|    | (1) 고린도교회가 분열한 이유가 무엇인가?                                |  |
|    | (2) 분열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  |
|    | (3)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는가?                    |  |
| 결론 |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예배 섬김이

|          |        |            |
|----------|--------|------------|
| 오늘 섬기실 분 |        | 다음 주 섬기실 분 |
| 예 배 기 도  | 조계승 장로 | 유신웅 장로     |

| 매일 Q.T. |                                                                                                                                                                                                                                                        |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br>주님의 준엄한 경고 | 날짜 : 3월 15일 |
|---------|--------------------------------------------------------------------------------------------------------------------------------------------------------------------------------------------------------------------------------------------------------|---------------------------|-------------|
| 찬양      |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             |
| 본문      | 마태복음 23:13-24                                                                                                                                                                                                                                          |                           |             |
| 말씀요약    |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아 자기는 물론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두루 다니며 얻은 교인을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을 성전과 제단보다 크게 여기고, 식물의 십일조는 드러도 더 중요한 정의와 공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                           |             |
| 목상질문 1  | 천국 문을 막아선 자들 23:13-15<br>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교인들을 어떤 길로 이끌었나요? 나를 본받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                           |             |
| 목상질문 2  | 정의, 공휼, 믿음이 따르는 삶 23:16-24<br>성도가 십일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                           |             |
| 한절목상    | 마태복음 23장 23절<br>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실 때도 혹시 부정할 것이 섞일까 봐 형겔으로 걸러서 먹었습니다. 십일조 규정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믿음 좋은’을 과시하기에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만한 외식이 또 없었습니다.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공휼을 버린 채 행하는 믿음의 과시는 허울만 그럴듯한 위선일 뿐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저는 누구를 닮기 위해 애쓰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지 돌아봅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 말씀 앞에서 처절히 고뇌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말씀에 눈이 열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복을 얻게 하소서.                                                                                                         |                           |             |

| 개인성경공부 “외식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 |                                                                                                                                                                                                                                                                                                                                                                                                                                                                                                                                                                                                                                                                                                                                         |
|-------------------------|-----------------------------------------------------------------------------------------------------------------------------------------------------------------------------------------------------------------------------------------------------------------------------------------------------------------------------------------------------------------------------------------------------------------------------------------------------------------------------------------------------------------------------------------------------------------------------------------------------------------------------------------------------------------------------------------------------------------------------------------|
| 찬양과 기도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
| 목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p>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만큼만 알고, 그 앎을 통해 삶을 꾸려 갑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독가스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화학 실험 세트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작은 유리병 속에는 수십 가지 화학 물질이 담겨 있었는데, 화학 물질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스포이드와 시험관 등을 포함한 장난감 세트는 자녀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는 부모들의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습니 다. 만들어 판 회사나, 사는 부모들이나, 실제 가지고 노는 아이들 모두 그 화학 약품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약품들의 조합에 따라 폭탄이나 독가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기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가져오는 피해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됩니다.</p> <p>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인간이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교만은 확장돼 자신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p> <p>어떤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수한 적이 있나요? 이후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p> |
| 말씀 나누기                  | 마태복음 23:25~39                                                                                                                                                                                                                                                                                                                                                                                                                                                                                                                                                                                                                                                                                                                           |
| 목상포인트                   |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생각과 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만 의식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한계에 유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려 힘쓰는 성도는 훗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관찰과 목상                  |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25~31절)                                                                                                                                                                                                                                                                                                                                                                                                                                                                                                                                                                                                                                                                      |
| 적용하기                    |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진 않나요?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 함께 기도하기                 | 제 생각과 경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고 목상할 때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소서. 모든 일에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
| 기도                      |                                                                                                                                                                                                                                                                                                                                                                                                                                                                                                                                                                                                                                                                                                                                         |

| 매일 Q.T. |                                                                                                                                                                                                                                                           | 성취되길 소망하며<br>굳게 붙들 영원한 말씀 | 날짜 : 3월 19일 |
|---------|-----------------------------------------------------------------------------------------------------------------------------------------------------------------------------------------------------------------------------------------------------------|---------------------------|-------------|
| 찬양      |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             |
| 본문      | 마태복음 24:29-35                                                                                                                                                                                                                                             |                           |             |
| 말씀요약    |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온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며, 인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한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             |
| 묵상질문 1  | 옛 질서의 몰락, 새 질서의 확립 24:29-31<br>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                           |             |
| 묵상질문 2  |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 24:32-35<br>예루살렘 멸망 예언의 성취와 주님 재림의 성취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내가 붙들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마태복음 24장 32절<br>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준비하듯, 예수님은 세상과 역사의 여러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녁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은 맑고, 아침노을이 고우면 곧 날이 꺾을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애로 바쁜 현대인은 자연과 세상을 살피고 역사와 이웃으로부터 배울 만큼 여유롭지도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카이로스(때)는 결국 도둑처럼 오고야 말 것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천지가 없어져도 영존하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허락하소서. 마지막 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는 백성으로 서도록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고질적 죄악에 임할<br>지옥의 심판 | 날짜 : 3월 16일 |
|---------|---------------------------------------------------------------------------------------------------------------------------------------------------------------------------------------------------------------------------------------------------------------|----------------------|-------------|
| 찬양      |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                      |             |
| 본문      | 마태복음 23:25-39                                                                                                                                                                                                                                                 |                      |             |
| 말씀요약    | 예수님이 겉만 깨끗한 그릇과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조상이 선지자를 죽일 때 자신은 가담치 않았을 거라 장담하지만, 그들도 그들 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암탉처럼 예루살렘을 모아 품으려 하셨으나 그들이 원치 않았기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                      |             |
| 묵상질문 1  | 종교 지도자들의 고질적 위선 23:25-32<br>회칠한 무덤의 안과 밖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내 내면의 죄악 된 모습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23:33-39<br>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                      |             |
| 한절묵상    | 마태복음 23장 27절<br>“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나’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진짜 나’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에 집착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에 목숨을 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허상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복과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짜 나’의 구원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능력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겉모습만 치장하는 위선을 버리고,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을 쏟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인생이 늘 새로워지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br>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 날짜 : 3월 17일 |
|---------|---------------------------------------------------------------------------------------------------------------------------------------------------------------------------------------------------------------------------------------------------------------|-----------------------------|-------------|
| 찬양      |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                             |             |
| 본문      | 마태복음 24:1-14                                                                                                                                                                                                                                                  |                             |             |
| 말씀요약    |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시기와 말세의 징조를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간다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                             |             |
| 목상질문 1  | 세상 끝 날의 징조 24:1-8<br>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소식이 들려올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                             |             |
| 목상질문 2  | 끝까지 견딜 이유 24:9-14<br>성도들이 고난당하는데도 주님이 즉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목상    | 마태복음 24장 13절<br>종말론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종말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질문보다 ‘종말은 언제인가’를 더 많이 궁금해합니다. 종말에 대한 선부른 ‘계산’은 재난을 만날 때마다 비상식적인 집단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키워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종말을 보여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악한 세력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온 교회의 주인이시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이는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슬퍼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성전 파괴와<br>전 우주적 재림 예언 | 날짜 : 3월 18일 |
|---------|-----------------------------------------------------------------------------------------------------------------------------------------------------------------------------------------------------------------------------------------------------|-----------------------|-------------|
| 찬양      |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
| 본문      | 마태복음 24:15-28                                                                                                                                                                                                                                       |                       |             |
| 말씀요약    |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난이 있겠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날수를 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             |
| 목상질문 1  | 유대 지역에 임할 환난 24:15-22<br>예수님은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큰 환난의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                       |             |
| 목상질문 2  | 재림, 전 우주적 사건 24:23-28<br>예수님이 재림을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번개’로 묘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내가 갖출 지식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목상    | 마태복음 24장 24절<br>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인구의 10%와 영토의 15%를 잃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돈을 마구 찍는 통에 빵값은 2천억 배나 뛰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해 ‘독일의 영광’을 되찾자며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독일 교회는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용인하는 것은 늘 ‘우리’기 때문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닥쳐올 환난 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들을 위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 가게 하소서.                                                                                                      |                       |             |